

妊娠惡阻의 外治法에 대한 考察

宋炳基·李京燮*·林垠美**

ABSTRACT

A study on the external treatment of hyperemesis gravidarum

Byung-Kee Song,O.M.D., Kyung-Sub Lee,O.M.D., Eun-Mee Lim,O.M.D.

Hyperemesis gravidarum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 in the early pregnancy and if it cause severe malnutrition by means of heavy vomiting as a basic sign of disease of pregnant syndrome, appropriate treatments are necessary.

In the clinics the methods of treatment of hyperemesis gravidarum include herb-medication usually. But herb-medication therapy is rather difficult because during pregnancy it may cause vomiting by the smell and taste of herbs. So the author investigated the literatures referred to the external treatments of hyperemesis gravidarum excluding herb-medication and the results obtained here were as follows.

1. The external methods of treatment of hyperemesis gravidarum are various and include moxibustion, the method of applying drug at the umbilicus, ear-acupuncture method, pressure

* 경희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부인과

**경원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부인과교실

massage therapy, naso-spray method, acupoint injection, intervenous injection.

2. Among the external methods of treatment of hyperemesis gravidarum , the method of applying drug at the umbilicus is most variable and almost all prescriptions use Zingiber officinalis Rosc, characteristically.

3. Ear-pressure massage method to treat the hyperemesis gravidarum uses the ear-acupoints of Gan, We, Shin-mun, Gyo-gam.

4. Among the external methods of treatment of hyperemesis gravidarum , moxibustion, pressure massage, and acupoint injection select frequently Nae-gwan(PC6), Chok-samni(ST36) and Chung-wan(CV12).

5. In the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methods of treatment of hyperemesis gravidarum one have to differentiate syndromes in the viewpoint of oriental medicine and treat with the principls of treatment and prescriptions which are fit to each differentiation model under the principle of regulating the stomach and relieving vomiting.

I. 緒 論

妊娠惡阻는 妊娠惡食阻食의 略稱으로서 ‘입덧’ 이라고도 하는데 妊娠初期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症狀의 하나로, 因胎而致母病의 基本病證이라 할 수 있다.³⁾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妊娠初期에 대부분의 妊婦는 輕度の 惡心, 嘔吐, 惡食擇食, 胃腸障礙, 嗜酸, 頭眩, 目眩, 精神不安등의 症狀이 나타난다.^{7,12)}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처치 없이도 심신을 安靜하고, 通便과 食餌療法을 적절히 하면 임신 3-4개월 이후에는 자연히 소실된다. 그러나 완고한 嘔吐등으로 고도의 營養障礙를 초래하게 되면 적절한 治療를 必要로한다.^{2,3)}

惡阻의 病名은 <諸病源候論>²²⁾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子病, 兒病, 食病, 阻病, 病食, 選飯, 惡子, 惡食등의 名稱^{3,8,12,13,14,22,26,29,40)}으로 불리었다. 惡阻는 妊娠初期에 月經이 中止하여 血海에 藏而不瀉하므로 經血이 胞宮으로 모여 養胎에 專力하게되면 相對的으로 衝脈之氣가 較盛하게 되어 上逆犯胃하면 胃失和降하여 발현하게 된다.^{14,16,26)} 胃失和降하여 胃逆을 일으키는 原因은 脾胃虛弱으로 冲氣上逆하여 犯胃하거나, 或은 평소 中焦에 痰飲阻滯하여 衝脈의 氣와 痰濕이 함께 上逆하거나, 或은 평소 肝陽이 較盛하거나, 或은 喜怒肝傷으로 肝旺하여 犯胃하여 惡阻를 發하는 것등으로 대략 脾胃虛弱, 痰飲阻滯, 肝胃不和, 氣陰兩虛 네가지로 나누어 辨證할 수 있다.^{11,14,21,40)} 妊娠惡阻의 治療原則은 和胃降逆을 爲主^{11,14,36)}로, 脾胃虛弱인 경우에는 健脾和胃降

逆하고, 痰飲인 경우에는 祛痰和胃降逆하고, 肝胃不和로 인한 경우에는 抑肝和胃降逆하며, 氣陰兩虛인 경우에는 益氣養陰生津해야 한다.^{11,21,40)} 臨床에서 治療方法은 辨證에 의한 湯藥의 投與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妊娠중의 藥物服用은 母體는 물론 胎兒의 成長發育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注意가 요구³⁰⁾되며, 臨床에서 湯藥固有의 香臭나 味때문에 湯藥 投與時 오히려 嘔吐가 더 유발되기도 하므로 他 疾患에 비하여 湯藥의 投與가 容易하지 못한 편이다. 婦人科의 內外治法은 傳統的으로 이용해 온 坐藥, 熏洗法등을 비롯하여 婦人科疾患의 治療에 다양한 方法들이 응용²⁶⁾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東西의 醫學理論을 결합한 더욱 새로운 方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本人은 韓藥의 內服藥 投與 이외에 妊娠惡阻의 治療에 쓰이고 있는 外治의 方法을 정리하여 보았다.

II. 本 論

1. 外治法에 대한 考察

東洋醫學에서 外治法은 治療方法의 한 분야로서 그 歷史가 매우 오래되어 人類의 發達과 함께 發展되어 왔다.³⁴⁾ 外治法은 內治法에 상대되는 方法으로서 經口投與의 方法이 아니라 鍼灸를 통한 經穴刺戟, 氣功療法, 導引術과 藥物을 皮膚나 九竅에 貼敷하거나 洗滌하는 方法등을

통하여 疾病을 治療하는 方法⁴⁾이니 <內經>⁹⁾에 “內者內治, 外者外治” “形苦志樂, 病生于筋, 治之以熨引”이라하여 비교적 상세히 外治의 方法과 내용을 敘述하고 있다. 그 후 漢의 <傷寒雜病論>에 烙, 熨 外敷, 吹喉, 坐藥, 藥浴, 浸洗, 灌耳 등의 다양한 外治法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外治法이 광범위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本草綱目>에는 外治法과 關聯된 處方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 社會의 發展과 함께 醫學의 外治法도 함께 發展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⁴⁾

그러나 그 후 後世醫家들의 治療體制가 內治를 重視하고 外治를 輕視함으로써 外治法은 많이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治療方法도 鍼灸療法과 藥物의 內服療法에 偏重되어 外治의 方法은 많은 문헌적 뒷바침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다⁴⁾. 그러나 吳師機^{12,13,26,34)}가 “外治之理, 卽內治之理, 外治之藥, 卽內治之藥, 所異者法耳”라 한 것과 같이 內治法과 外治法은 理論이나 處方, 藥物등은 서로 동일하고 그 法만 다를 뿐이며, 外治法은 方法이 간편하며 使用이 便利하고 效果가 良好하며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며, 內服藥을 投與할 경우 發生하는 副作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藥物을 投與하여도 毒作用이나 副作用의 誘發이 적은 등의 長點^{4,12,16,27,31)}이 있으며, 특히 久病 或은 大病으로 극도로 體虛하거나, 脾胃의 運化機能障礙로 攻補하는 藥劑의 投與가 어렵거나, 韓藥을 服用하기를 거부하는 患者나, 藥物의 投與로 效果를 보기 곤란한 症인 경우의 患者에게 內治法

과는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이 內服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外治法의 우수한 점이다.²⁶⁾ 그러므로 靑代의 吳師機가 지은 <理瀾駢文>^{13,26)}에 “外治法可與內治並行, 而能補內治之不及”이라 하였다.

外治法은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多樣하나 그중에서도 우리가 臨床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方法은 經絡을 이용한 鍼과 灸의 方法이다. 그외에도 藥敷, 膏貼, 薰蒸, 焙熨, 推拿, 坐浴, 吸香, 塞栓등 여러가지 方法이 있다.^{4,26,33)} 婦人科에서는 生藥이나 熏洗法등 外用藥을 이용한 外治法이 다른 疾患에 비해 비교적 많이 活用되어 婦人科疾患의 外治法만을 다룬 女性外治療法이라는 書籍도 出刊되었다.

최근 中國에서 많이 活用되고 있는 方法은 太乙真人熏臍法과 彭祖蒸臍法등으로 古代 商殷시대부터 施行되어온 비교적 오랜 歷史를 지닌 敷臍療法¹³⁾이다. 이 方法은 韓醫學理論에 根據하여 適當한 藥物을 일정한 劑型 즉, 粉이나 糊, 膏, 餅으로 만들어 臍에 붙이는 方法으로서^{4,13,16,27)} 藥物의 性能이 皮膚를 통과하여 經絡의 傳導作用과 藥物濃度가 血液보다 組織이 더 높은 擴散作用에 의하여 직접 吸收되므로 治療效果가 迅速하다.¹⁶⁾ 또한 臍臑, 神闕穴은 任脈의 穴로서 “臍爲一身原氣之根本”¹³⁾이며, “臍通百脈”^{27,31)}, “臍爲十二經脈之生”²⁷⁾이라하여 人體의 臟腑經絡과 밀접한 聯關이 있어 內臟의 병변시 藥物을 臍에 붙이게 되면 藥效가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12,13,27)} 敷臍療法은 方法이 쉽고 간편하므로

배우기가 쉽고 使用하기도 쉬우며, 適應症이 많고 效果가 현저하며, 경제적이고 毒作用이나 副作用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12,16,27,31)} 그러나 長期間 連續하여 사용하면 發赤, 疼痛, 皮膚潰瘍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皮膚가 過敏하거나 皮膚에 損傷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당치 않다.^{12,13,26,31)}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穴位注射療法은 經絡學說의 原理에 根據하여 東西藥物을 選擇하여 有關한 穴位, 壓痛點등에 注入하여 刺鍼과 藥物作用을 통하여 人體의 機能을 調整하고 病理狀態를 改善시켜 疾病을 治療하는 새로운 治療法이다. 이 治療法은 藥效의 發生이 빠르고, 藥物이 위장관에서 破壞되는 것을 防止할 수 있고, 內服하기 어려운 患者에게 직접 投與할 수 있는 長點이 있으나, 製劑의 抽出過程에 아직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고, 局所刺戟, 注射後 疼痛, 溶血, 發熱등의 副作用이 생길 우려⁷⁾가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研究와 發展이 필요하다. 東西醫學의 理論을 서로 結合하여 藥物을 製劑하여 注射液으로 만들어 靜脈에 注射하는 靜脈注射方法도 作用이 빠르며 投與할 수 있는 劑量이 크며 血中의 濃度가 높아 治療效果가 확실한 長點⁷⁾이 있으나 이 方法도 製劑의 造成方法에 대한 많은 實驗과 研究및 安全性에 대한 檢査가 이루어져야 한다.

2. 妊娠惡阻에 대한 考察

婦人科疾病중 妊娠惡阻는 妊娠중에 흔히 일어나는 疾病으로서 惡阻의 病名은 <諸病源候論>²²⁾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子病”, “兒病”, “食病”, “阻病”, “病食”, “選飯”, “惡子”, “惡食” 등의 名稱^{3,8,12,13,14,22,26,29,40)}으로 불리웠으며, 惡阻의 症狀를 認識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金匱要略:婦人妊娠病脈症并治>³⁵⁾에서 “婦人得平脈, 陰脈小弱, 其人渴(嘔), 不能食, 無寒熱, 名妊娠, 桂枝湯主之”라는 文句에서 나타난다.

惡阻의 病理에 대한 認識은 隋代 巢元方の <諸病源候論:妊娠惡阻候>²²⁾에서 “...此由婦人本元虛羸 血氣不足 腎氣又弱 兼當風飲冷太過 心下有痰水挾之 而有娠也. 經血既閉 水漬於藏 臟氣不宣通”이라 하여, 先天的인 素因으로 元本虛羸, 妊娠으로 인한 血氣不足과 腎虛, 外因으로 當風飲冷이 그 原因이 되며, 痰水가 그 病機가 됨을 認識하였다. 그 후 宋代의 陳自明이 <婦人良方大全>³⁷⁾에서 “由胃氣怯弱 中脘停痰”이라하여 胃氣虛로 痰飲이 생겨 本病을 誘發한다고 보았으며, 이후로 부터 脾胃虛弱, 痰飲 또는 停痰을 惡阻의 病因으로 認識하는 醫家들이 나타났다.¹⁴⁾

張³²⁾은 惡阻는 주로 脾胃虛弱而兼滯者가 많다고 하였고, 아울러 이에 續發되는 飲食停滯, 中脘多痰등을 말하였고, 吳²⁵⁾는 “當以胃弱爲主 更審其或因胎氣阻逆, 或痰飲阻逆, 與夫兼熱兼寒, 以分治之”이라하여 惡阻의 原因이 胃弱이 爲主가 되며, 그외에 胎氣阻逆, 痰飲阻逆등도 말하였다.

戴復庵은 “蓋其人宿有痰飲 血壅遏而不行 故飲

水氣上”이라 하여 平素에 痰盛한 素因이 있었음을 말하며 痰飲을 主因으로 認識하였다.²¹⁾ 그 외에 王²⁸⁾等^{9,17,23,24)}은 陳自明의 말을 引用하면서 다른 原因들과 함께 脾胃虛弱과 痰飲이 惡阻原因중의 하나가 됨을 말하였다.

明代의 朱丹溪로 부터는 肝火를 惡阻의 또 다른 病理로 認識하게 되었으니 즉, “肝火挾衝脈之火上衝也”의 理論이다. 丹溪는 또한 情志內傷이 그 原因의 하나가 됨을 認識하였는데 “...此時 惡阻病 必怒氣所激의 問之果然 肝氣既逆 又挾胎氣”라 하여 怒氣傷肝의 病機를 밝혔다.^{14,21,23,40)} 또, 清의 傅青主¹⁸⁾는 “..誰知肝血亦燥乎. 夫婦人受任 本于腎氣之旺也 腎旺是以攝精. 然腎一受精而成妊 卽腎水生胎 不暇化于五臟 而肝爲腎之子... 而腎水不能應 卽肝氣益急 肝急卽火動而逆也.”라 하여 腎水의 不足으로 인해 肝陰까지 虛하게 되는 所謂 “水不涵木”의 病機를 說明하였고, 이는 虛하여 생기는 症이니 治法에 있어서도 丹溪의 瀉肝火와는 달리 補腎平肝, 補氣生血해야 함을 말하였다.

葉²⁰⁾과 李挺등은 子宮과 胃의 經絡的인 關係로서 惡阻가 일어나는 病機를 說明하였는데 <醫學入門>³⁰⁾에 “由子宮經絡 絡於胃口 故逢食氣引動 精氣衝上 必食 吐盡以後 精氣乃安”이며, 張景岳³²⁾은 “衝任上壅 氣不下行 故爲嘔逆”이라하여 衝任脈의 上逆이 그 病機가 됨을 말하였고, 張³⁵⁾은 “妊娠嘔吐不止 乾薑人參半夏丸主之”라하여 寒이 原因이 됨을 말하였다.

現代醫學에서는 妊娠嘔吐의 發生을 孕모성선

자극호르몬의 증가나 자율신경실조, 면역의 변화, 단백질대사변화에 의한 비타민B6의 결핍, 영양상태불량등과 스트레스나 정신적 불안정등 妊婦의 정서상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명확치 않다.^{2,10,12,14)}

惡阻의 症狀으로는 武¹⁷⁾는 “惡心嘔吐頭眩惡食擇食也”라 하였고 張²¹⁾은 “精神如故 喜酸惡食或嗜一物 或大吐時 吐疾如清水 肢體沈重頭眩”이라 하였으며, 葉²⁰⁾은 “惡聞食氣喜酸鹹四肢倦怠多臥少起厭厭困瀨”라 하였고, 張³²⁾은 “惡心嘔吐脹滿不食”이라 하였으며, 陳³⁷⁾은 “心煩惡食嘔吐”라 하였고, 傅¹⁸⁾는 “惡心嘔吐 思酸解渴 見食憎惡 困倦欲臥”라 하였으며, 巢²²⁾는 “心中煩悶 頭眩四肢煩疼 懈惰不欲執作 惡聞食氣 欲噉鹹酸果實 多睡少起”라 하여 詳述하고 있다. 妊娠惡阻, 즉 妊娠嘔吐는 惡心과 嘔吐를 主症狀으로하며 妊娠6주내에 나타나며 전 妊娠婦의 50%이상은 임신 14주 이내에 사라지게 된다.²⁾ 일반적인 症狀으로는 惡心, 嘔吐, 惡食擇食, 頭眩, 心煩, 吐痰涎, 不能食, 面萎黃, 精神困倦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그러나 심한 嘔吐가 장기간 계속되어 飲食物의 攝取가 不可能하여 母體의 營養障礙를 일으킬 수 있는 重한 狀態에 이르면 治療를 必要로 하게 된다.^{2,3,14)} 臨床經過는 3단계로 분류되는데, 제1기는 완고한 惡心과 嘔吐를 主症으로 하는 時期이며, 제2기는 嘔吐가 심해지고 심한 中毒症이 나타나 黃疸, 乏尿, 食慾減退등의 症狀이 나타나며, 제3기는 계속 中毒症狀을 일으켜 耳鳴, 視力障礙, 頭痛, 眩暈, 不眠등의 症狀이 나타

난다.^{3,7,36)} 그러나 妊娠期間중 胃炎이나 蟲垂炎등 다른 原因으로도 嘔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鑑別하여야 한다.^{3,14)}

妊娠惡阻는 비록 동일한 症狀이라고 해도 그것을 일으키는 原因은 한 가지가 아니어서 一方一藥으로 通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稟賦와 體質을 가리고, 一連의 症狀들을 반드시 그 病機의 特徵과 臨床症狀을 결부시켜 辨證論治하여 治療해야 하니, 이들을 대략 脾胃虛弱, 痰飲阻滯, 肝胃不和, 氣陰兩虛의 네가지로 辨證^{11,21,36)}할 수 있다.

治療의 原則은 調氣和中, 降逆止嘔를 爲主^{14,27,36,40)}로 해야 하며, 脾胃虛弱인 경우에는 健脾和胃降逆하고, 痰飲인 경우에는 祛痰和胃降逆하고, 肝胃不和의 경우에는 抑肝和胃降逆하며, 氣陰兩虛인 경우에는 益氣養陰生津의 治法을 使用한다.^{14,21,36,40)}李 등에 의하면 內服藥으로 脾胃虛弱인 경우 四君子湯을, 痰飲인 경우 二陳湯을, 肝胃不和인 경우 加味溫膽湯등을 주로 使用^{11,36)}하였는데, 이에비하여 外治에 使用한 方法및 辨證, 主治등을 조사하여 본 바 다음과 같다.

3. 妊娠惡阻의 外治方法

1. 鼻吹法^{26,36)}

- ① 處方 : 신선한 고수 한웅큼, 蘇葉, 藿香 各 3g, 陳皮, 砂仁 各6g
- ② 方法 : 위의 藥物을 끓여 患者의 額에 놓고 藥物의 氣味를 鼻空으로 吸收케한

다.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한다.

③ 主治 : 醒脾和胃 降逆止嘔

④ 活用 : 肝脾不和型의 惡阻

2. 敷臍法

[處方 1] 惡阻膏^{4,12,13,15,16,26,27)}

① 處方 : 半夏15g, 砂仁3g, 豆久(或은 白豆仁, 波薐)3g, 生薑汁1잔

② 方法 : 半夏, 生薑, 砂仁을 細末한뒤 生薑汁으로 알맞게 반죽한다. 臨床에서 쓸 때에는 먼저 生薑조각으로 환자의 臍部를 문질러 熱이 나게 한 후 반죽한 藥을 배꼽위에 올려놓고 거즈로 덮고 반창고로 붙인다. 매일 藥을 1-2회 갈아준다. 보통 한두번 藥을 갈아붙이면 嘔吐가 緩和되기 시작한다.

③ 主治 : 健脾和胃 降逆止嘔

④ 活用 : 脾胃虛弱型의 妊娠惡阻²⁶⁾

痰濕型의 惡阻¹⁶⁾

[處方 2]^{13,15,16,26)}

① 處方 : 신선한 生薑汁1잔, 작두콩겉질(단재가 섞인것) 10g, 식초 적당량

② 方法 : 작두콩겉질을 細末하여 生薑汁을 넣고 또 식초를 약간 加하여 반죽하여 膏를 만든다. 이 藥을 大棗만한 크기로 떼어 臍部에 붙이고 거즈로 덮고 반창고로 붙인다. 매일 약을 1회- 3회 정도 갈아붙인다.

③ 主治 : 和胃降逆止嘔

④ 說明 : 여기에 生薑 5g과 흑설탕 5g을 같이 끓여 마시면 더욱 좋다.

[處方 3] 小半夏散加味^{12,26,27,31,33,34)}

① 處方 : 丁香15g, 半夏20g, 신선한 生薑30g

② 方法 : 丁香과 半夏는 細末하고 生薑汁(或은 生薑煎湯液)으로 膏상태로 반죽하여 적당량을 취하여 臍部에 붙이고 거즈로 덮는다. 반창고로 고정시킨다. 하루나 이틀 후에 藥을 갈아준다. 일반적으로 하루가 지나면 嘔吐가 점차 가라앉고 3일간 붙이면 음식이 前과 같아진다.

③ 主治 : 芳香降逆止嘔²⁶⁾

④ 活用 : 脾虛痰濁型 惡阻²⁶⁾

⑤ 說明 : 小半夏散은 化飲降逆止嘔하는데 다시 丁香을 加하여 溫中降逆止嘔한다. 生薑은 和胃化飲, 降逆止嘔하여 각종 嘔吐의 聖藥이 되며, 半夏는 理氣止嘔하고 丁香은 溫中降逆한다. 이들 세 藥을 合用하면 脾胃虛寒하고 停飲한 嘔吐를 治한다.

[處方 4] 生薑散^{12,27,31,33,34)}

① 處方 : 生薑 6g

② 方法 : 生薑은 乾하여 細末하여 물로 膏형태로 반죽하여 적당량을 취하여 內關穴과 臍部에 붙이고, 傷濕止痛膏 또는 반창고로 고정시킨다.

③ 說明 : 生薑은 性이 溫하고 辛味를지녀 降逆止嘔하고 溫中散寒의 良藥이 된다. 이를

內關穴과 神闕穴에 붙이면 모두 溫中和胃하고 降逆止吐하는 우수한 效果가 있다.

時에 이 丸을 神闕穴에 놓고 누른 후 반창고로 고정시킨다. 다시 그 위에 艾條灸를 15-20분 정도씩 1일 1-2회 시술한다.

[處方 5]¹⁶⁾

- ① 處方 : 丁香15g, 半夏20g, 白朮15g, 黨參15g, 生薑30g
- ② 方法 : 丁香, 半夏, 白朮, 黨參을 같이 細研末한 후 生薑을 煎湯한 液에 개어 적당량을 취하여 臍部에 붙인후 반창고로 固定시킨다. 연속하여 1-3일정도 붙인다.
- ③ 活用 : 脾胃虛寒型의 惡心嘔吐에 응용

[處方 8]¹⁶⁾

- ① 處方 : 黃連12g, 吳茱萸6g, 작두콩(刀豆子) 5個, 紫蘇葉汁1잔
- ② 方法 : 黃連, 吳茱萸, 刀豆子는 모두 研末한 후 紫蘇葉汁으로 반죽하여 膏상태로 만든 후, 적당량을 취하여 환자의 臍部에 붙이고 반창고로 고정시킨다. 매일 약을 두세번 갈아주는데 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 ③ 活用 : 肝熱型의 妊娠惡阻에 活用한다.

[處方 6] 朮砂膏³¹⁾

- ① 處方 : 白朮炒2g, 砂仁1g, 半夏1g, 生薑30g
- ② 方法 : 白朮, 砂仁, 半夏는 細研末하여 生薑과 함께 찜어서 膏상태로 만든후 臍部에 붙이고 반창고로 고정시킨다. 2-3일에 한번씩 藥을 갈아주며 매일마다 따뜻한 물주머니로 15-20분 정도 찜질해준다.
- ③ 活用 : 脾胃虛弱型 妊娠惡阻에 쓴다.
- ④ 說明 : 본 處方의 白朮과 砂仁은 健脾化痰祛濕하고, 半夏와 生薑은 降逆止嘔하므로 脾胃虛弱型의 妊娠嘔吐에 效果가 좋다.

[處方 9]^{13,13,26)}

- ① 處方 : 작두콩 5個, 白豆蔻(或은 波蔻) 3g, 生薑汁, 生紫蘇葉汁, 生蘿菈汁 各 1잔, 술
- ② 方法 : 작두콩과 白豆蔻를 研末한 후 生薑汁과 紫蘇葉汁, 생무우즙으로 반죽하여 膏상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사용할 때에는 술을 조금 붓고 가열하여 뜨거운 상태로 환자의 臍部에 붙인 후 고정시킨다. 매일 약을 한두번 갈아주는데 보통 약을 한두번 갈아 붙이면 嘔吐가 完化되기 시작하는데 만일 낫지않으면 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處方 7] 妊娠嘔吐不止方^{4,13,16,26)}

- ① 處方 : 雄黃, 五倍子 各30g, 枯白礬15g, 葱頭5個, 肉桂5g, 公丁香2g, 술적당량
- ② 方法 : 모든 藥物을 擘아 研末한 후 술을 적당량 부어 작은 환을 빚어 놓는다. 治療

- ③ 主治 ; 健脾和胃 降逆止嘔
- ④ 活用 : 痰濕型의 妊娠惡阻

3. 耳壓法

[處方 1]²⁶⁾

- ① 主穴 : 神門, 交感, 皮質下, 內分泌
配穴 : 胃, 膈, 만약 심한 嘔吐와 腹痛이 同伴 하면 平喘穴
- ② 方法 : 王不留行의 씨앗으로 양쪽 耳를 모두 자극한다.
매일 3-4회정도 아플 정도로 자극을 주며, 2-3일에 한번 교환한다.
- ③ 主治 : 鎮靜止痛 鎮吐消炎

[處方 2]²⁹⁾

取穴 : 胃, 脾, 肝, 三焦, 神門, 交感을 가볍게 매일 한번씩 자극을 주거나 耳針을 꽂아둔다.

[處方 3]³⁹⁾

取穴 : 胃, 肝, 交感, 脾, 賁門, 枕, 皮質下

[處方 4]¹⁹⁾

取穴 : 胃, 肝, 交感, 皮質下, 神門穴을 2-3회 强刺戟하거나 20-30분간 留鍼한다.

[處方 5]³⁶⁾

取穴 : 神門, 胃, 皮質下

4. 艾灸法

[處方 1]²⁶⁾

艾灸로 內關穴을 매일 1-2회 灸한다. 아침에 일어난 후가 가장 좋다.

[處方 2]^{26,29)}

- ① 穴位 : 天突, 中脘, 巨闕, 內關(兩側), 神門(兩側), 足三里(兩側)

② 處方 : 艾葉250g, 蒼朮30g

③ 方法 : 먼저 蒼朮을 細末하고 艾葉은 비벼 얇은 종이로 싸서 보통 길이는 20-30cm 정도, 직경은 1.2cm 정도로 가늘고 길게 만든다.

④ 造作 : 환자를 눕게 하고 天突, 中脘, 巨闕, 內關(兩側), 神門(兩側), 足三里(兩側)등의 穴을 取하여 艾灸에 불을 붙여 약 1寸 정도의 거리에서 그 穴位의 피부가 빨갱게 될 때까지 쬐인다. 매일 한번씩 한다.

⑤ 主治 : 溫中和胃止嘔

⑥ 活用 : 脾胃虛弱型 妊娠嘔吐

[處方 3] 燈火灸法²⁶⁾

① 治療穴位 : 內關, 太衝, 足三里, 中脘
加減 : 肝鬱者는 肝俞, 行間穴을, 胃熱者는 間使, 內庭穴을, 痰濕者는 陰陵泉, 豐隆穴을 加한다.

② 方法 : 明燈暴灸法을 사용하여 매일 한번씩 灸하는데, 한 穴당 1장씩한다.

③ 主治 : 抑肝和胃降逆 寬中止嘔

④ 活用 : 肝胃不和型 妊娠惡阻

[處方 4] 燈火灸法²⁶⁾

① 治療穴位 : 內關, 足三里, 中脘, 脾俞, 陰陵泉, 關元, 太衝

② 方法 : 明燈暴灸法을 사용하여 매일 한번씩 灸하는데, 한 穴당 1장씩한다.

③ 主治 : 健脾和胃 降逆止嘔

④ 活用 : 脾胃虛弱型 妊娠惡阻.

⑤ 注意事項 : 灸治療후에 灼熱感을 느끼면 龍膽紫藥水를 발라 感染을 防止한다.

[處方 5] 雀啄灸法²⁹⁾

- ① 取穴 : 上腕, 建里, 間使, 足三里
- ② 方法 : 雀啄灸法으로 매일 2-3回 灸하는데, 每穴을 매번 5-10분마다 灸한다.

5. 按壓法

[處方 1]²⁶⁾

- ① 治療穴位 : 內關
- ② 方法 : 妊娠婦가 일어나자마자 20여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內關穴을 가볍게 20여회 정도 눌러준다.

[處方 2]²⁶⁾

- ① 治療穴位 : 內關, 膈俞, 足三里, 公孫, 太衝, 腎俞
- ② 方法 : 손가락끝으로 內關穴을 지긋이 50여차례 정도 눌러준다. 腎俞와 膈俞는 각각 100회정도 눌러주고 이어 足三里穴도 눌러준다. 몇 분 후 다시 조금 더 강한 정도로 足陽明胃經의 穴을 눌러주고, 다시 公孫과 太衝을 조금 더 세게 100회정도 누른다.
- ③ 主治 : 和胃止嘔
- ④ 活用 : 脾胃不和型 妊娠嘔吐

6. 穴位注射法

[處方 1]²⁶⁾

- ① 治療穴位 : 脾俞, 胃俞
- ② 藥物 : 클로르프로마진 注射液 25mg/g, 비타민B₁ 注射液 100mg/g
- ③ 方法 : 위의 주사액을 각각 5ml 주사기에 넣어 穴位에 수직으로 刺入하여 酸脹感을 느끼면 藥物을 穴位에 注入한다. 일반적으로 胃俞穴에는 클로르프로마진을, 脾俞穴에는 비타민B₁을 주사한다. 매일 1회씩 주사한다.
- ④ 主治 : 健脾和胃 降逆止嘔
- ⑤ 注意事項 : 背部의 穴位는 内部臟器에 刺傷을 줄 수 있으므로 너무 深刺하지 않도록 한다.

[處方 2]^{26,29)}

- ① 治療穴位 : 天突, 中脘, 內關
- ② 藥物 : 비타민B₁ 100mg/ml 加 비타민B₆ 50mg/2ml
- ③ 方法 : 1일 1회 매혈위마다 0.5 ml씩 注射하는데 5일이 한 치료주기이다.
- ④ 主治 : 寬胸理氣, 降逆止嘔

7. 中藥靜脈注射法²⁶⁾

- ① 處方 : 元參, 麥門冬, 生地, 포도당 各 等分
- ② 方法 : 위의 處方을 에틸알콜로 抽出하는데 500ml에 生藥이 500g 함유되어 있다. 만약 脫水症狀이 심하거나 陰液虧耗症狀이 현저

하여 電解質平衡이紊亂하면 먼저 5% D/S 를 먼저 点滴 주사한 후에 1000-5000ml의 生津注射液을 준다. 증상이 輕한 경우는 매일 500-1000ml정도의 生津注射液을 준다. 1-2일정도 치료하면 심한 惡阻症狀은 緩和된다.

- ③ 主治：生津 養陰 增液
- ④ 活用：심한 妊娠惡阻

Ⅲ. 資料分析 및 考察

妊娠을 하면 일반적으로 妊娠初期에 惡心嘔吐, 厭食擇食, 胃腸障礙, 嗜酸, 頭眩目眩, 倦怠嗜睡 등의 症狀이^{7,12,26,36,40} 나타나는데, 만약 嘔吐가 심하게되어 食入即吐하면, 음식물의 攝取가 어려워져 營養障礙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治療가 필요하니 이를 妊娠惡阻^{3,11,21,36}라고 한다.

惡阻의 發生은 脾胃虛弱과 肝脾不和가 原因이 되어 胃失和降하여 衝脈의 氣가 上逆하기 때문이며,^{16,27} 현대의학에서는 妊娠嘔吐의 發生을 孕모성성선자극호르몬치의 증가 및 妊婦의 정서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2,12,14}

妊娠惡阻는 대략 脾胃虛弱, 痰飲阻滯, 肝胃不和, 氣陰兩虛 네가지로 辨證할 수 있다.^{11,36,40} 惡阻를 辨證論治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病機의 特徵과 臨床症狀을 결부시켜야 한다.

脾胃虛弱으로 惡阻가 일어나는 病機는 平素에

飲食攝取가 不良한 脾胃虛弱한 體質인 者가 妊娠하여 月經이 停止함으로써 血海를 寫할 수 없게 되어 衝脈의 氣가 旺盛해져 上逆犯胃하여 胃失和降^{1,14,21,36}함으로서 惡心嘔逆, 嘔吐清水, 惡聞食氣, 不思飲食, 或食入即吐, 脘腹脹滿, 口中淡淡無味, 倦怠嗜臥, 舌淡苔白, 脈緩滑無力한 證候가 나타난다.^{1,14,26,38,40}

痰飲으로 인해 惡阻가 일어나는 病機는 脾虛로 인해 運化水濕機能이 失調되어 痰飲이 內停하거나, 平素 肥滿體型으로 膏粱之味를 좋아하는 사람이 中脘에 痰飲이 停滯되어 있는 경우, 妊娠을 하면 衝脈의 氣가 旺盛해져 痰飲을 挾하고 上逆하여 嘔吐痰涎或粘沫, 胸滿不思飲食, 頭暈頭重, 體倦嗜臥, 口中淡膩, 或心悸氣短, 或胸膈有水聲, 舌淡苔白膩, 脈沈滑 등의 症狀이 特徵으로 나타나며, 또한 痰濕鬱滯化熱하여 熱證을 兼할 수도 있다.^{1,14,16,21,38,40}

肝火(肝熱)로 인하여 惡阻가 일어나는 病機는, 肝陽이 偏亢되어 있는 體質이거나, 平素 性情이 躁急易怒한 者가 妊娠을 하는 경우 經血이 養胎를 위해 胞宮으로 몰리면 肝血이 더욱 虛해지고 陰虛即陽亢, 肝旺犯胃하게 되어 胃失和降하여 嘔逆較甚, 嘔吐黃苦水或酸水, 頭暈而脹, 胸悶脇痛, 情志抑鬱, 心煩易怒, 口苦咽乾, 大便秘, 小便黃, 舌紅苔薄黃, 脈弦滑 등의 症狀을 발하게 되는 것으로 說明할 수 있다.^{1,14,21,36,38,40}

妊娠惡阻의 治療原則은 調氣和中하고 降逆止嘔^{14,36,38}한다. 惡阻의 治療方法중 外治方을 中國文獻을 中心으로 살펴본 바, 위에 나타난 것

처럼 그 種類가 다양하지만 크게 藥物을 臍에 먼저 敷臍法의 處方 및 穴位, 辨證등을 살펴 붙이는 敷臍법과 그의 기타의 方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볼 수 있다.

〈표1. 敷臍法의 種類〉

處方名	構成藥物	液體	穴位	辨證分型
惡阻膏	半夏, 砂仁, 白豆仁 (或 豆蔻, 波蔻) ^{4,12,13,15,16,26,27)}	生薑汁	神闕	脾胃虛弱 ²⁶⁾ 痰濕型 ¹⁶⁾
	작두콩겉질 (刀豆殼) ^{13,15,16,26)}	生薑汁, 米醋	神闕	
小半夏散加味	丁香, 半夏 ^{12,26,27,31,33,34)}	生薑	神闕	脾虛痰濁型
生薑散	乾生薑 ^{12,27,31,33,34)}	물	神闕, 內關	
	丁香, 半夏, 白朮, 黨參 ¹⁶⁾	生薑	神闕	脾胃虛寒型
朮砂膏	白朮炒, 砂仁, 半夏 ³¹⁾	生薑	神闕	脾胃虛弱型
妊娠嘔吐不止方	雄黃, 五倍子, 枯白礬, 葱頭, 肉桂, 公丁香 ^{4,13,16,26)}	술	神闕	
	黃連, 吳茱萸, 刀豆子 ¹⁶⁾	紫蘇葉汁	神闕	肝熱
	작두콩(刀豆子), 白豆蔻 ^{13,16,26)}	生薑汁, 紫蘇葉汁, 生蘿菈汁, 술	神闕	痰濕型

妊娠惡阻에 活用된 敷臍方은 모두 9個로서 여러 文獻에 중복되어 記載되어 있었으나 편의상 모두 하나로 처리하였다. 惡阻의 外治法중 外用藥의 使用頻度を 살펴보면 生薑을 煎湯하거나 생것을 찢어서 쓰거나, 乾하여 細末하여 쓰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處方에서 生薑이 使用되고 있는 점이 特異하다. 生薑^{5,12)}은 性이 溫하고 辛味를 지니 溫中散寒의 良藥이 되며 和胃化飲, 降逆止嘔하여 각종 嘔吐의 聖藥이 된다. 半夏^{5,31)}는 辛溫有毒한 性味를 지니고 있어 降逆止嘔, 燥濕祛痰, 消痞散結하니 주로 止吐에 쓰인다. 半夏와 生薑 2味를 合方하면 <金匱要略>의 小半夏湯으로서 張仲景은 “諸嘔

吐者 穀不得下 小半夏湯主之”라 하여 各種嘔吐의 良方이 된다.^{12,35)} 砂仁과 丁香, 白豆蔻는 溫運中氣藥⁵⁾으로서 砂仁^{5,12)}은 芳香性 健胃劑로서 辛溫한 藥性으로 和胃醒脾, 行氣調中한다. 丁香^{5,12)} 역시 辛溫한 藥性을 가진 芳香性 健胃劑로서 溫胃健脾, 補腎의 要藥이 되어 宣中暖胃하므로 溫中降逆한다. 白豆蔻⁵⁾는 辛溫無毒하고 辛味를 지닌 芳香性 健胃劑로서 性이 輕清하여 散寒行氣의 要藥이 되며 溫緩脾胃, 止嘔除寒하는 作用이 있다. 白朮⁵⁾은 補脾, 和胃, 燥濕하는 補土除濕之品の 藥이 된다. 刀豆子⁶⁾는 작두콩으로서 甘溫한 性味를 지니고 있으며, 溫中, 下氣, 益腎하는 效가 있어 虛寒呃逆, 嘔吐등을 治한다. 刀豆의

殼은 和中下氣하고 散瘀活血하는 功效가 있다. 蘇葉⁵⁾은 辛溫한 發表散寒藥이나 開胃益脾寬中하는 작용이 있어 芳香性健胃劑로도 사용되었다.

〈표2. 藥物의 使用頻度〉

回數	藥 物
7회	生薑
4회	半夏
3회	丁香
2회	砂仁 白朮 刀豆子 紫蘇葉汁 술
1회	白豆仁 黨參 白豆蔻 刀豆殼 肉桂 枯白礬 五倍子 雄黃 黃連 吳茱萸 生薑煎汁 술

李¹¹⁾의 妊娠惡阻에 口服하는 處方을 分析한 結果를 보면, 주로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의 四君子湯과 半夏, 陳皮, 赤茯苓, 灸甘草, 生薑의 二陳湯을 脾胃虛弱과 痰濕阻滯의 惡阻症에 많이 使用³⁶⁾하였으며, 藥物의 使用頻度數도 茯苓, 甘草, 陳皮, 人蔘, 半夏, 白朮등과 枳殼, 砂仁, 厚朴 등의 藥物이 頻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外用藥物에 있어서도 脾胃虛弱인 경우는 白朮과 半夏를, 肝熱인 경우는 吳茱萸, 黃連, 蘇葉등을, 痰濁內阻인 경우는 丁香과 半夏등을 使用하여 清代의 吳師機^{12,13,26)}가 “外治之理卽 內治之理, 外治之藥卽 內治之藥, 所異者法耳”라 하고 “膏藥治病, 無殊湯藥, 用之得當, 其響立應”이라 한것과 같이 外治法이나 內治法이 모두 같이 辨證에 의하여 症狀을 辨別하고 그 辨證에 따라서 각각 다른 處方을 使用하였으며, 또한 같은 辨證에 內治法과 外治法에 使用한 藥物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外用藥物에 있어서는 外用으로 바르기 위하여 좀더 性이 溫하고 芳香性이 強하며 味가 厚한 猛烈한 藥이 쓰이므로 砂仁, 丁香, 白豆蔻등의 比較적 芳香性이 강한 藥物이 使用된 점이 內治法과 다를 뿐, 內治法이나 外治法이나 모두 妊娠惡阻에 주로 健脾和胃, 化痰順氣하는 治法을 使用하였다. 이들 外用藥을 붙인 部位는 神闕穴이며, 內關穴이 단 1회이다. 神闕穴, 즉 臍는 經氣가 匯聚하는 곳²⁷⁾으로서 五臟六腑之氣의 出入之處가 되므로 彭祖의 小續命蒸臍法²⁷⁾에 이르기를 “臍者, 腎間動氣, 氣通百脈布五臟六腑, 內走臟腑經絡 使百脈和暢, 毛竅通達, 上至泥丸, 下至涌泉”이라 하여 臍와 臟腑經絡과는 生理病理의으로 密接한 關係¹⁶⁾가 있다. 現代醫學的 研究에서도 臍는 胚胎 發育過程중 腹壁이 가장 늦게 닫혀지는 곳으로서 表面의 角質層이 가장 얇고 保護膜이 가장 弱하며, 血管과 神經의 分布가 比較적 풍부하므로 藥物이 쉽게 透過되어 擴散되며, 또한 배꼽의 皮膚에는 皮下脂肪組織이 없고 皮膚와 筋膜이 腹膜과 直接 連結되어 있으므로 滲透力이 強하여 藥物의 吸收에 有利하다.^{13,16,27,31)} 그러므로 臍에 藥物을 붙이면 藥物이 臍를 刺戟하여 經絡의 氣를 觸發시켜 經絡을 疏通하고 氣血을 調和함으로서 臟腑의 陰陽平衡을 調整하여 治療의 目的에 도달하게 된다.¹³⁾

두번째는 妊娠惡阻의 治療에 敷臍法 이외에 灸法이나 按摩, 穴位注射등을 使用한 경우로서, 穴位와 方法을 區分하여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其他 方法〉

治療法	部位	材料	主治 및 辨證
鼻吹法 ^{26,36)}		고수, 蘇葉, 藿香, 陳皮, 砂仁	醒脾和胃 降逆止嘔 肝脾不和型
耳壓法 ²⁶⁾	神門, 交感, 皮質下, 內分泌	王不留行의 子	鎮靜止痛 鎮吐消炎
耳壓法 ²⁰⁾	胃, 脾, 肝, 三焦, 神門, 交感		
耳壓法 ³⁰⁾	胃, 肝, 交感, 脾, 賁門, 枕, 皮質下		
耳壓法 ¹⁹⁾	胃, 肝, 交感, 皮質下, 神門		
耳壓法 ³³⁾	胃, 神門, 皮質下		
艾灸法 ²⁰⁾	內關	艾葉	
艾灸法 ^{26,20)}	天突, 巨關, 中腕, 內關, 神門, 足三里	艾葉, 蒼朮	溫中和胃止嘔 脾胃虛弱型
燈火灸法 ²⁶⁾	內關, 太衝, 足三里, 中腕	燈心草	肝胃不和型
燈火灸法 ²⁶⁾	內關, 足三里, 中腕, 脾俞, 陰陵泉, 關元, 太衝	燈心草	脾胃虛弱型
雀啄灸法 ²⁰⁾	上腕, 建里, 間使, 足三里	艾葉	
按壓法 ²⁰⁾	內關		
按壓法 ²⁶⁾	膈俞, 足三里, 公孫, 太衝, 腎俞		
穴位注射 ^{26,20)}	天突, 中腕, 內關	비타민B ₁ , B ₆	
穴位注射 ²⁶⁾	脾俞, 胃俞	비타민B ₁	
中藥靜脈注射 ²⁶⁾		元參, 麥門冬, 生地黃, 포도당	

鼻吹法은 香氣가 있는 藥物의 香臭를 鼻空으로 吸入케하는 方法으로서 陽氣를 補強하고 寒氣를 몰아내는 作用^{4,26)}을 하니 惡阻에 芳香性 健胃藥物을 이용하여 醒脾하고 和胃降逆하는 作用으로 止嘔²⁶⁾한다.

耳針法의 경우에는 주로 胃, 肝, 交感, 神門등의 穴을 選穴하여 理氣和胃降逆하고 鎮靜止嘔하는 作用으로 妊娠惡阻를 治하고 있다.

〈표4. 穴位의 使用頻度〉

回數	穴 位
6회	內關
5회	足三里
4회	中腕
3회	太衝
2회	脾俞, 天突
1회	巨關, 神門, 陰陵泉, 關元, 上腕, 建里, 間使, 膈俞, 公孫, 腎俞, 胃俞

灸法과 按摩法, 穴位注射療法 등에 활용한 穴位들을 살펴보면, 內關穴은 心包經의 絡穴이며 八脈交會穴 중 陽維脈과 陰維脈의 交會穴로서 모두 6회 쓰여 全身 陰經의 作用을 連絡하며, 寬胸利膈, 寧神鎮痛, 疏肝和中하는 效能이 있어 內臟疾患治療의 要穴^{24,29)}이 된다.

足三里는 5회 쓰였는데 足陽明胃經의 合穴로서 和胃健脾, 通腑化痰, 升降氣機하는 作用을 하여 降逆止嘔^{24,29)}한다. 中脘穴은 4회 쓰였는데 胃의 募穴로서 八會穴 중 腑會이며 任脈氣가 發하는 곳으로서 人의 中氣를 품고 있어서 營氣가 出하므로 和胃健脾하고 通降腑氣하는 效能이 있다.^{24,29)} 太衝穴은 3회 쓰였으며 足厥陰肝經의 原穴로 衝脈의 別處가 되며, 清瀉肝熱, 健脾化濕, 和中理氣하는 功效가 있다.²⁴⁾ 天突穴과 脾俞穴은 妊娠惡阻에 2회 쓰였는데, 天突穴은 陽維脈과 任脈이 交會하는 곳으로서 宣通肺氣, 消痰止咳하는 作用을 하며, 脾俞穴은 脾氣의 輸注之處로서 健脾和中, 以化痰濁, 升清止泄하는 作用²⁴⁾이 있어 脾疾患의 중요한 腧穴²⁹⁾이 된다.

따라서 妊娠惡阻에 가장 많은 使用頻度を 보인 것은 內關穴이지만 脾胃虛弱인 경우는 上脘, 中脘, 足三里穴을, 肝脾不和인 경우는 內關, 太衝, 中脘, 足三里穴을, 濕痰인 경우는 足三里, 中脘, 陰陵泉, 豐隆 등의 穴位를 선택하고 있어 灸法 등의 外治法도 各各의 症狀를 辨證하여 그 證에 알맞은 穴位를 辨別하여 選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妊娠中이므로 強刺戟은 피하여야 한다.²⁶⁾

灸法에서 艾葉은 <本草綱目>에서 “艾葉能救百病”이라 하였고, <本草叢新>에서는 “艾葉苦辛生溫 熟熱 純陽之性 能回垂絕之陽 通十二經 走三陰 理氣血 逐寒濕 暖子宮 以之灸火 能透諸經 而除百病”이라 하여 通經活絡, 祛除陰寒, 回陽救逆 등의 作用이 있어 施灸의 材料로 많이 이용되었으며,⁷⁾ 그 외에 蒼朮과 燈心草 등이 灸의 材料로 이용되었다. 燈火灸法은 直接灸로서 植物油를 묻힌 燈心草에 불을 붙여 灸하는 方法¹⁵⁾으로 行氣利痰, 解鬱開胸, 醒昏定搐하는 效能이 있어 주로 小兒科 疾患과 腹痛, 胃痛, 呃逆 등에 이용되는 灸法¹⁵⁾이다. 惡阻에서는 內關이나 足三里, 中脘穴에 燈火灸하여 和胃降逆하였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經絡學說의 原理에 근거하여 東西藥物을 선택하여 有關한 穴位에 注入하는 穴位注射療法과, 注射液으로 만들어 靜脈에 주사하는 靜脈注射療法 등은 刺戟과 藥物作用을 통하여 人體의 機能을 調整하고 病理狀態를 改善시켜 疾病을 治療하는 새로운 方法⁷⁾으로 妊娠惡阻에 인위적 동면마취제의 일종인 클로르프로마진과 비타민을 穴位에 注射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製劑의 抽出方法이나 安全性에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研究와 實驗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아직 우리나라 現 醫療體制下에서는 이런 方法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7,29)}

總括적으로 妊娠惡阻에 활용할 수 있는 方法은 口服하는 湯藥이외에도 鍼刺法이나 灸法, 敷臍法, 耳針法, 按摩法, 鼻吹法, 穴位注射法, 靜

脈注射法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敷臍法은 다양한 處方이 있어서, 症을 辨證하여 各 分型에 맞는 處方을 選用하였으며, 이는 內治法에서의 各 辨證分型의 藥物과 거의 일치하였다. 灸法이나 按摩, 穴位注射療法등에는 內關穴과 足三里, 中脘穴등이, 耳針에서는 胃, 肝, 神門, 交感등의 穴位가 많이 選穴되었는데 모두 和胃降逆止嘔하는 治法이 應用되었다. 그러므로 妊娠惡阻의 治療에 湯藥의 內服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臨床에서 傳統的으로 이용되어 왔던 敷臍法등의 外治法을 活用하여 治療의 時야를 넓혀 볼 만하다. 그러나 아직 일부의 外治法은 安全性이나 製劑의 造成方法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研究와 實驗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思慮된다.

IV. 結 論

妊娠惡阻의 外治法에 대한 文獻을 整理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妊娠惡阻에 活用된 外治方法은 鍼刺法외에도 灸法, 敷臍法, 耳壓法, 按壓法, 鼻吹法, 穴位注射法, 靜脈注射法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2. 妊娠惡阻에 活用된 外治法중 敷臍法이 가장 다양하였으며, 敷臍法에 쓰인 藥물은 內治之藥과 동일하였고, 거의 모든 處方에 生

薑을 사용한 것이 特徵的이었다.

3. 妊娠惡阻에 活用된 耳壓法은 肝, 胃, 神門, 交感등의 穴이 주로 選穴되었다.
4. 妊娠惡阻에 活用된 外治方法중 灸法과 按壓法, 穴位注射法에는 주로 內關과 足三里, 中脘穴등이 頻用되었다.
5. 妊娠惡阻에는 內治法이나 外治法 모두 和胃降逆止嘔하는 治療原則下에 外治法도 모두 症狀를 韓醫學的 理論에 根據하여 辨證하고 各 辨證分型에 맞는 治療原則과 處方으로 治療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V. 參 考 文 獻

1. 姜明孜 : 臨床婦產科學, 서울, 成輔社, pp.212-218, 1989.
2. 羅建榮 : 最新產科學, 서울, 高文社, pp.118-120, 1975.
3. 宋炳基 : 韓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pp.297-303, 1980.
4. 신광호 : 韓方外用藥, 서울, 열린책들, pp.222-223, 1994.
5. 李尙仁 : 本草學, 서울, 修書院, pp.56-58, p.194, pp.203-204, pp.344-345, pp.393-398, 1981.
6. 傳統醫學研究所編 : 本草藥材圖鑑, 서울, 成輔社, p.112, 1994.
7. 崔容泰 外 : 鍼灸學, 서울, 集文堂, pp.1457

- 1467, 1988.
8.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606-608, 1981.
 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p.95, 1981.
 10. 梁秀烈, 李京燮 : 惡阻症治療에 관한 臨床的研究,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1卷 1號, pp. 83-87, 1987.
 11. 李在成 外 : 妊娠惡阻의 辨證論治에 대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7卷 1號, pp.133 -150, 1994.
 12. 喬模 外 : 百病外貼療法, 山西省, 山西科學技術出版社, pp.1-7, pp.119-121, 1995.
 13. 譚支紹 : 中醫藥物貼臍療法, 廣西, 廣西科學技術出版社, pp.1-19, pp.139-141, 1989.
 14. 羅元愷 外 : 中醫婦科學, 知音出版社, pp.177-182.
 15. 黎文獻 主編 : 中國常用民間療法, 廣東, 廣東高等教育出版社, pp.29-31, p.190, 1991.
 16. 馬汴梁 等編 : 敷臍妙法治百病,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pp.1-9, pp.202-205, 1992.
 17. 武之望 ; 濟陰綱目, 臺北, 旋風出版社, pp.248 -254, 1975.
 18. 傅山 : 傅青主女科,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pp.29-30. 1978.
 19. 上海中醫學院編 : 鍼灸學, 香港, 商務印書館, pp.294-295, 1982.
 20. 葉桂 : 葉天士女科, 서울, 醫道出版社, pp.71 -73, 1978.
 21. 成都中醫學院編 : 中醫婦科學講義, 香港, 醫藥衛生出版社, pp.66-71, 1966.
 22. 巢元方 : 巢氏諸病源候論, 臺中, 昭人出版社, 41권 p.5, 1958.
 23. 蕭燾 : 女科經綸,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p.88 -93, 1986.
 24. 楊甲三 主編 : 鍼灸學, 知音出版社, pp.303-305, pp.373-375, pp.412- 413, pp.419-420
 25. 吳謙 : 醫宗金鑒,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52-53, 1980.
 26. 王金權, 蔡玉華 共主編 : 女性外治良方妙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1-23, pp.134-139, 1993.
 27. 王富春, 張穎新 主編 : 臍治療百病, 長春, 吉林科學技術出版社, pp.1-15 pp.167-168, 1993.
 28. 王化貞 : <金鑑>註釋, 서울, 醫聖堂, pp.7-8, 1982.
 29. 劉喆 編著 : 古今婦科鍼灸妙法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145- 156, 1993.
 30. 李挺 : 編柱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p.53, pp.320-321, 1984.
 31. 李宗一 外 : 敷臍療法,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p.1-4, pp.120-121, 1994.
 32. 張介賓 : 婦人規, 廣東, 廣東科學技術出版社, pp.163-167, 1986.
 33. 張慶偉 外 : 古今中藥外治高效驗方100首,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pp.356-357, 1992.
 34. 張俊庭 主編 : 古今外治靈驗單方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 pp.1-7, p.99, pp.390-391, 1993.

35. 張仲景 :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p.428, 1984.
36. 陳貴廷 楊思澍 主編 : 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904-907, 1991.
37. 陳自明著 薛己註 : 校注婦人良方,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2권, pp.13- 17.
38. 賀升效 外 : 女科臨證輯要, 甘肅科學技術出版社, pp.87-91, 1990.
39. 黃麗春 : 耳穴診斷治療學, 서울, 醫聖堂, p.136, 1993.
40. 黃繩武 外 : 中醫婦科學,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pp.87-90, 1987.